2027학년도 성균관대학교 수시 논술 대비

논술 예상 문항 문제지

(인문계 · 언어형) [세트 1]

수험번호		성 명	

【 수험생 유의사항 】

1. 시험 시간은 100분입니다. 실제 시험처럼 시간을 재고 푸십시오.
2. 문제지는 총 4 쪽(표지 제외)이며, 문항과 배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 1 (40점) 문제 2 (40점) 문제 3 (20점) 합계 100점
3. 글자 수 제한은 없습니다. 답안은 답안지의 해당 문제 작성영역 안에만 쓰며, 작성영역을 넘긴 부분은 평가하지 않는 것으로 연습하십시오. 답안지 칸 수는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셉니다.
4. 문제별 답안은 반드시 해당 문제의 작성영역에 씁니다. 다른 문제의 영역에 쓴 답안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5.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마십시오.
6. 이 문제지는 성균관대학교 2027학년도 모의논술(언어형)의 출제 형식을 바탕으로 포도논술이 만든 예상 문항입니다. 성균관대학교가 출제하거나 공개한 문항이 아니며, 제시문은 포도논술이 집필하고 자료는 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7. 작성한 답안을 포도논술(podotools.net/essay)에 입력하면 세 문제를 한 번에 채점·첨삭받을 수 있습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문제 1] 〈제시문 1〉 ~ 〈제시문 4〉는 개인의 성취와 사회적 불평등에 관한 다양한 견해를 담고 있다. 제시문들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40점)

〈제시문 1〉

1968년 사회학자 머턴은 과학계에서 일어나는 한 가지 현상에 주목했다. 이미 이름이 알려진 과학자와 무명의 과학자가 비슷한 수준의 발견을 하더라도 그 공로는 대개 유명한 쪽에 더 많이 돌아간다는 것이다. 명성은 연구비와 유능한 조수, 학술지의 지면을 끌어오고, 그렇게 얻은 자원은 다시 더 큰 성과와 명성으로 이어진다. 머턴은 가진 사람은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긴다는 성경 「마태복음」의 구절을 빌려 이를 '마태 효과'라고 불렀다. 출발점의 작은 차이가 시간이 흐르며 저절로 커지는 이러한 누적적 이익의 구조는 과학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어린 시절 조금 앞선 아이는 칭찬과 관심, 더 좋은 기회를 먼저 얻고, 그 경험이 다시 자신감과 실력의 차이를 벌린다. 한 번 벌어진 차이는 그 자체로 다음 차이를 낳는 원인이 된다. 같은 노력도 누가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로 돌아오는 것이다. 교육은 흔히 출신과 관계없이 실력을 겨루는 공정한 경기장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프랑스의 사회학자 부르디외는 학교가 평가하는 '실력'의 상당 부분이 이미 가정에서 길러진다고 보았다. 어려서부터 책과 대화, 공연과 여행을 가까이하며 자란 아이는 학교가 요구하는 말투와 사고방식, 교양을 자연스럽게 몸에 익힌다. 부르디외는 이처럼 가정에서 대물림되어 학업과 사회적 성공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언어 습관, 취향, 지식을 '문화 자본'이라고 불렀다. 어떤 아이가 뒤처지는 것은 그가 게으르거나 무능해서라기보다, 평가의 기준 자체가 특정한 가정환경에서 자란 사람에게 익숙한 것으로 짜여 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그런데도 학교는 이 차이를 개인의 재능과 노력의 차이로 판정하고 학위라는 공식 자격으로 확인해 준다. 그 결과 부모 세대의 사회적 위치가 자녀 세대로 이어지는 과정이 공정한 경쟁의 결과처럼 보이게 된다. 실증 연구도 이러한 구조를 뒷받침한다. 미국의 한 연구진은 1940년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약 90%가 서른 살 무렵 부모 세대보다 높은 소득을 올렸지만, 198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에게서는 그 비율이 절반 정도로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이 하락의 상당 부분이 경제 성장의 과실이 고르게 나뉘지 않은 데서 비롯되었다고 보았다. 이전 세대보다 사람들이 덜 노력하게 된 것이 아니라 노력이 결실로 이어지는 통로가 좁아졌다는 것이다. 부모의 소득이나 학력이 자녀의 학업 성취, 진학, 첫 일자리와 뚜렷한 관련을 보인다는 사실도 여러 나라의 조사에서 거듭 확인되어 왔다. 개천에서 용이 나기 어려워졌다는 말이 자주 들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성취의 격차를 개인의 성실함이나 게으름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그 격차를 만들어 내는 사회의 작동 방식을 가리는 일이다. 출발선의 차이가 저절로 증폭되는 구조 속에서 개인에게만 책임을 묻는다면, 불평등은 '각자 노력한 결과'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고착된다.

〈제시문 2〉

1990년대 초 심리학자 에릭슨과 동료들은 베를린의 한 음악 학교에서 바이올린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조사했다. 교수진의 평가에 따라 학생들을 세계적인 연주자로 성장할 만한 집단, 우수한 집단, 음악 교사를 목표로 하는 집단으로 나눈 뒤 이들이 살아온 과정을 비교했다. 연구진은 학생들에게 일주일 동안의 일과를 기록하게 하고, 연주를 시작한 뒤 나이마다 일주일에 몇 시간씩 연습해 왔는지를 되짚어 추정하게 했다. 연구진은 이 연습 시간이 학생들의 회고에 기댄 추정이라는 한계를 밝히면서, 집단 사이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 차이가 혼자 연습한 시간의 누적량이었고 연습량이 많은 집단일수록 성취 수준도 높았다고 보고했다. 가장 뛰어난 집단은 스무 살 무렵까지 혼자 연습한 시간이 평균 1만 시간 안팎으로 추정되었고, 음악 교사를 목표로 하는 집단은 그보다 훨씬 적었다. 더 중요한 것은 연습의 질이었다. 뛰어난 학생들은 이미 잘하는 곡을 되풀이하는 대신, 자신이 아직 해내지 못하는 부분을 찾아내 그것을 넘어서는 데 집중했다. 에릭슨은 이를 '의도적 연습'이라고 불렀다. 운동선수가 경기 장면을 녹화해 자신의 실수를 하나하나 분석하는 것, 학생이 틀린 문제를 다시 풀며 자신이 어디에서 막히는지 확인하는 것도 모두 의도적 연습에 해당한다. 그것은 즐겁지 않고 오래 견디기도 어렵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견딘 사람과 견디지 못한 사람 사이의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벌어진다. 에릭슨은 이를 근거로 탁월함이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불편함을 견디며 쌓아 올린 시간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노력의 힘은 예술이나 운동처럼 특별한 분야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성취를 결정하는 것은 단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이다. 오늘 공부를 미루지 않고 한 시간 더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선택은 그 자체로는

미미해 보이지만, 그런 선택이 몇 년 동안 쌓이면 복리처럼 불어나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다. 하루쯤 미뤄도 괜찮다는 선택 역시 같은 방식으로 누적된다. 미국의 정치가 프랭클린은 젊은 시절 절제, 질서, 근면 등 열세 가지 덕목을 정해 두고 한 주에 한 덕목씩 집중하여 실천하면서, 날마다 지키지 못한 것을 작은 수첩에 표시해 나갔다고 자서전에 적었다. 그는 덕목을 완벽하게 지키지는 못했지만, 그 기록을 이어 가는 동안 스스로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고 회고했다. 같은 교실에서 같은 교재로 같은 시간 동안 수업을 들은 학생들 사이에서도 성취가 크게 갈리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더욱이 노력할 수 있는 능력 자체도 고정된 것이 아니다. 심리학자 드웩은 능력이 노력과 학습을 통해 자란다고 믿는 학생들이 어려운 과제 앞에서 쉽게 포기하지 않고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했다. 그의 실험에서 '머리가 좋구나'라는 칭찬을 들은 학생들보다 '열심히 노력했구나'라는 칭찬을 들은 학생들이 다음 과제로 더 어려운 문제를 고르는 경향을 보였다. 자기조절 역시 훈련을 통해 길러질 수 있다. 작은 목표를 세우고 지키는 경험이 거듭되면 '나는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더 큰 목표를 향한 노력을 지탱한다. 성취의 출발점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출발점이 도착점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비슷한 조건에서 출발한 사람들이 서로 다른 곳에 도착하는 것은 그사이에 무엇을 선택하고 얼마나 꾸준히 실천했는가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성취의 격차를 오로지 사회 구조의 탓으로 돌리는 설명은 개인에게서 삶을 바꿀 힘을 빼앗는다. 실패의 원인이 전적으로 바깥에 있다고 믿는 사람은 굳이 자신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그것을 붙잡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기회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환경을 탓하는 말은 잠시 위로가 될 수는 있어도 내일의 나를 바꾸어 주지는 않는다. 물론 노력하는 사람이 언제나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노력 없이 성취를 오래 지켜 낸 사람은 드물다. 사회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 주어진 조건 속에서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꾸준히 쌓아 가는 개인의 노력이야말로 성취를 이끄는 가장 확실한 힘이다.

〈제시문 3〉

어떤 사람이 높은 소득과 지위를 얻었을 때 우리는 흔히 그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철학자 롤스는 이러한 생각에 근본적인 물음을 던진다. 한 사람이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는지, 어떤 재능을 지니고 태어나는지는 그 사람이 선택한 것이 아니다. 부유한 집안이나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는 것, 뛰어난 수리 능력이나 운동 신경을 갖고 태어나는 것은 모두 자연과 사회가 던진 주사위의 결과일 뿐이다. 롤스는 이처럼 개인의 노력과 무관하게 주어진 사회적·자연적 우연성이 사람들의 삶의 전망을 좌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도덕적 관점에서 임의적이라고 보았다. 그는 재능이 사람들 사이에 나뉘는 방식을 일종의 '자연적 추첨'에 견주었다. 추첨에서 좋은 번호를 뽑은 사람이 그 번호를 뽑을 만한 일을 한 것은 아니듯, 뛰어난 재능을 타고난 사람도 그 재능을 받을 만한 일을 미리 한 것은 아니다. 흔히 노력만큼은 온전히 개인의 몫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롤스에 따르면 기꺼이 노력하려는 의지, 성실하게 애쓰는 태도조차 타고난 능력과 가정환경, 사회적 여건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어린 시절 격려와 안정 속에서 자라 목표를 세우고 견디는 법을 익힌 사람과, 생계의 불안 속에서 당장의 하루를 버텨야 했던 사람에게 '똑같이 노력하라'는 요구는 같은 무게를 지니지 않는다. 따라서 노력을 보상의 근거로 삼는 일조차 운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렇다면 정의로운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롤스는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지위와 재능을 갖게 될지 모르는 상태, 곧 '무지의 베일' 뒤에서 사회의 기본 원칙을 정한다고 가정해 보자고 제안한다. 베일 뒤에서는 자신이 부유할지 가난할지, 재능이 많을지 적을지, 어떤 가치관을 갖게 될지 알 수 없으므로 누구도 자신에게만 유리한 원칙을 고를 수 없다. 그렇기에 이 상태에서 합의된 원칙은 공정하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이 가장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아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동등한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고, 비슷한 재능과 의욕을 가진 사람이라면 출신 배경과 관계없이 비슷한 성공 전망을 갖도록 하는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을 택할 것이다. 직업과 지위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형식적 평등만으로는 부족하다. 법이 누구에게나 지원할 자격을 허용하더라도, 어린 시절부터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에게 그 문은 사실상 닫혀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그것이 사회에서 가장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도록 편성될 때에만 허용된다는 '차등의 원칙'에도 동의할 것이다. 예컨대 어떤 직업에 더 높은 소득을 허용하는 제도는 그 덕분에 더 많은 사람이 그 일을 맡게 되고 결국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삶까지 나아질 때 정당화된다. 롤스는 이 원칙들 사이의 우선순위도 정했다. 기본적 자유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희생될 수 없으며, 공정한 기회 균등은 차등의 원칙보다

앞선다. 이것이 재능을 지닌 사람을 끌어내리자는 뜻은 아니다. 롤스는 타고난 재능의 분포를 일종의 공동 자산으로 보고,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얻더라도 그 이익이 불리한 처지의 사람들의 삶을 함께 개선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짜여야 한다고 보았다. 교육, 조세, 사회 보장 같은 제도는 바로 이러한 우연성의 영향을 보정하는 장치다. 이는 운이 좋았던 사람에게 그 운을 내놓으라고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조건 때문에 삶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결국 물어야 할 것은 개인이 얼마나 노력했느냐가 아니라, 우연히 주어진 차이가 삶 전체의 격차로 굳어지지 않도록 사회의 기본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이다. 재능이 자연적으로 분배된다는 사실 자체는 정의롭지도 부정의하지도 않다. 정의와 부정의는 사회 제도가 그 사실을 다루는 방식에서 비롯된다.

〈제시문 4〉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인격과 신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 영국의 철학자 로크는 이 자명한 원리에서 재산권의 근거를 찾았다. 자연 상태의 사물은 누구의 것도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 그 사물에 자신의 노동을 섞으면 그것은 그의 것이 된다. 숲에서 도토리를 주운 사람, 황무지를 일구어 곡식을 거둔 사람은 자신의 땀을 그 대상에 더했기에 그 결과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갖는다. 로크는 나아가 땅이 지닌 가치의 대부분이 땅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땅에 들인 노동에서 나온다고 보았다. 버려진 황무지와 정성껏 가꾼 밭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결국 사람의 수고라는 것이다. 다만 로크는 다른 사람에게도 충분하고 좋은 것이 남아 있어야 한다는 단서를 덧붙였다. 그리고 사람들이 정부를 세우는 이유 자체가 서로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서라고 보았다. 현대의 철학자 노직은 이러한 생각을 발전시켜 '소유 권리론'을 제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어떤 재산의 분배가 정의로운지는 그 결과가 얼마나 평등한가로 판단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그 재산이 어떤 과정을 거쳐 그 사람에게 왔는가이다. 정당한 방식으로 처음 취득하였고 강제나 사기 없이 자발적인 교환과 증여를 통해 옮겨 온 재산이라면, 그 결과 생긴 분배가 아무리 불평등하더라도 그것은 정의롭다. 그래서 노직은 '필요에 따라', '노력에 따라'처럼 분배가 따라야 할 정형을 미리 정해 두고 결과를 그 틀에 맞추려는 원리를 비판하고, 분배가 어떤 역사를 거쳐 이루어졌는지를 묻는 원리를 내세웠다. 물론 과거에 부당하게 얻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는 일은 정의가 요구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는 과거의 불의를 시정하는 것일 뿐, 결과를 고르게 만들기 위한 재분배와는 다르다. 노직은 다음과 같은 예를 든다. 누구나 정의롭다고 인정하는 분배가 이루어진 사회에 뛰어난 농구 선수가 있다. 그는 홈경기 입장권 값 가운데 25센트씩을 자신이 따로 받는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고, 그의 경기를 보고 싶은 관중은 기꺼이 표를 산다. 이 계약은 누구에게도 강요된 것이 아니다. 한 시즌 동안 100만 명이 그렇게 했다면 그는 25만 달러를 벌어 누구보다 부유해진다. 처음의 분배가 정의로웠고, 그 뒤의 이전은 모두 각자의 자유로운 선택이었다. 그렇다면 새로 생긴 불평등을 부정의하다고 말할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특정한 분배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면 사람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끊임없이 간섭할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정당하게 번 소득의 일부를 다른 사람을 위해 강제로 거두어 가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 노직은 노동 소득에 대한 과세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 강제로 일하게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재능과 노력을 들여 얻은 결과를 사회가 마음대로 재분배할 수 있다면, 개인은 자기 삶의 주인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고 만다. 노직이 보기에 사람은 저마다 자기 삶을 사는 분리된 존재이며, 어떤 사람에게 희생을 강요하여 다른 사람의 이익을 늘리는 것은 쉽게 정당화될 수 없다. 재능을 개발하고 위험을 감수하며 땀 흘린 사람이 그 결실을 누리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권리이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은 결과를 고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정당하게 얻은 것을 지켜 주는 것이다.

[문제 2] A국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 집단별 개인적 특성과 가정 배경을 제시한 〈자료 1〉과, 청년 기회 바우처 도입 전·후의 취업·소득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 2〉를 활용하여 [문제 1]의 두 입장을 각각 옹호하시오(자료에 제시된 정보 이외의 다른 모든 조건은 동일하다고 가정함). (40점)

〈자료 1〉 청년 집단별 개인적 특성과 가정 배경(T)

항목	A 집단	B 집단	C 집단	D 집단
자기조절 역량 점수[3]	38	76	41	79
주당 자기 주도 학습·훈련 시간(시간)[4]	6	19	7	18
가구 순자산 지수[5]	22	25	81	84
진로 정보·인적 연결망 점수[6]	24	31	77	82

주1) 개인적 특성과 가정 배경에 따라 조사 대상자들을 네 집단(A~D)으로 구분한 것이며, 각 집단의 표본 수는 모두 동일함. 조사 대상은 A국의 만 25~29세 청년임.
주2) T는 해당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시점을 말함.
주3) 자기조절 역량 점수: 0~100, 점수가 높을수록 스스로 세운 목표에 맞추어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가 높음
주4) 주당 자기 주도 학습·훈련 시간(시간): 지난 1년 동안 스스로 계획하여 공부나 직업 훈련에 쓴 주당 평균 시간
주5) 가구 순자산 지수: 0~100,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 부모 가구의 순자산이 많음
주6) 진로 정보·인적 연결망 점수: 0~100,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 정보를 얻거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주변 사람이 많음
※ 이 자료는 포도논술이 문항 출제를 위해 만든 가상 자료임.

〈자료 2〉 청년 기회 바우처 도입 이전(T)과 도입 5년 후(T+5) 집단별 취업·소득 관련 지표

항목	A 집단	B 집단	C 집단	D 집단
T 시점의 안정적 일자리 취업률(%)	18	34	41	63
T+5 시점의 바우처 이용률(%)	27	88	30	52
T 대비 T+5 시점의 월평균 근로 소득 증가율(%)	6	41	4	9
T+5 시점의 안정적 일자리 취업률(%)	22	55	43	65

주7) 청년 기회 바우처는 A국 정부가 T 시점 직후 도입한 제도로, 소득이나 성적과 관계없이 모든 청년에게 같은 금액의 직업 훈련·자격 취득·진로 상담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며, 이용권은 지급일로부터 3년 안에 사용해야 함.
주8) 바우처 도입 이전과 이후 각 집단의 자기조절 역량, 주당 자기 주도 학습·훈련 시간, 가구 순자산 지수, 진로 정보·인적 연결망 점수는 변화 없다고 가정하며, 바우처 외에 청년 취업·소득과 관련된 다른 정책 변화는 없었다고 가정함.
주9) 안정적 일자리 취업률(%)은 각 집단에서 계약 기간 1년 이상의 일자리에 취업한 사람의 비율을 의미함.
주10) 바우처 이용률(%)은 각 집단에서 지급받은 바우처를 한 번 이상 실제로 사용한 사람의 비율을 의미하며, 받기만 하고 쓰지 않은 경우는 포함하지 않음.
주11) 월평균 근로 소득 증가율(%)은 각 집단 취업자의 T 시점 대비 T+5 시점 월평균 근로 소득의 증가 비율을 의미함.
※ 집단 간 비교와 도입 전후 비교는 관련성을 보여 줄 뿐, 바우처의 인과 효과를 확정하지 않음.
※ 이 자료는 포도논술이 문항 출제를 위해 만든 가상 자료임.

[문제 3] K국 정부는 청년 세대의 출발선 격차 문제 해결을 위해, 고액 자산 보유자에게 부과하여 만 19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같은 금액의 출발 자산을 지급하는 청년 출발 자산 특별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학생은 이 방안에 찬성하는지 아니면 반대하는지 오직 하나의 입장을 택하고, [문제 1]의 제시문과 [문제 2]의 유관 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본인의 선택을 정당화하시오. (20점)

〈끝〉